



검사 대상자

- 성 경험이 있는 여성(미혼은 결혼 전 검사)
- 반복되는 질염 또는 질분비물이 이상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요도염/방광염이 생긴 경우
- 임신을 준비하거나 불임인 경우
- 성관계 시 질이 아프거나 성교 통증이 있는 경우

감염의 주요증상

- 미열이나 몸살기운이 있음
-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짐
- 배뇨 시 통증이 있음
- 하복부 통증, 뻣근함,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있음
- 질 분비물이 많아지고 가렵거나 냄새가 남
- 성관계 시 질이 아프거나 성교 통증이 있음
- 성기부분에 사마귀, 반점, 피부발진, 궤양 등이 있음

검사 전 준비사항

- 검사 1~2일 전에는 질 세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외음부 세척은 무방)
- 검사 1주일 전부터 질 안에 삽입하는 피임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능하면 생리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리 시작일로부터 10~20일 사이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검사 24시간 전에는 성관계를 금합니다.



CAP 인증기관



ISO 9001



K S L M

정확하고 빠른 분자진단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검사



성매개 감염병(STD)이란?

성매개 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염증 및 감염성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증상이 있는 환자와 무증상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다양한 원인균을 가지며 발생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감염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감염자의 30% 이상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방광염 등으로, 남성에게는 요도염, 전립선염, 부고환염 등으로 이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으로 인한 불임을 유발하고 산모의 경우 태아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개 감염병의 분자진단 검사

전통적인 성매개 감염 검사를 위한 방법들은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성매개 감염의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검사법은 다양한 원인균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하여 기존의 현미경 검사나 배양 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원인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검사법입니다.

소량의 균이 존재해도 원인균 DNA를 증폭하여 검출하므로 민감도가 뛰어나며 다수의 원인균을 한번에 검사하므로 중복 감염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STD Multiplex PCR / Multiplex real-time PCR 검사의 장점

- **정확성** : 원인균 유전자의 DNA를 증폭하므로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합니다.
- **민감성** : 현미경 검사나 배양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원인균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 **신속성** :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성** : 간단한 검체 채취 방법으로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감염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의 분류 및 주요원인

클라미디아 감염(Chlamydia infection)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은 남성에서 비임균성 요도염의 주된 원인이며, 여성에게는 무증상인 잠복기를 거쳐 골반의 염증이나 불임을 야기합니다.

임질(Gonorrhea)

임균(Neisseria gonorrhoea)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요도염이나 골반염, 자궁외 임신 등을 유발합니다.

유레아플라즈마 감염(Ureaplasma infection)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은 비뇨생식기의 정상 균으로 존재하며 기회감염을 유발합니다.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남성의 불임 및 전립선 질환을 일으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Mycoplasma infection)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 제니탈리움(Mycoplasma hominis & genitalium)은 비뇨생식기 점막에 흔하게 서식하며, 요로계 염증 및 전립선 질환을 일으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Trichomonas vaginalis)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Trichomonas vaginalis) 원충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여성에서 질염 및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경구피임약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항생제 치료 후 내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Bacterial vaginosis)

가드넬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lis)는 세균성 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으로 골반염, 요로감염, 자궁내막염, 조산, 조기 양막 파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칸디다 질염(Candida vaginitis)

습한 질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던 칸디다균(주로 candida albicans)이 질내 호르몬과 pH 변화에 의해 과잉증식하게 되는 경우 칸디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항생제나 경구 피임약 복용시, 임신 혹은 당뇨 환자 등에게도 나타납니다.

매독(Syphilis)

매독균(Treponema pallidum)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 혈액, 태반 등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1기 매독은 성기 주위에 무통의 궤양이 생기고, 2기 매독에서는 매독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파급되어 발진, 림프절 병증, 수막염,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매독으로 진행할 경우 심혈관매독, 신경매독이 발생합니다.

연성하감(Chancroid)

헤모필루스 듀크레이균(Haemophilus ducreyi)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성 질환입니다.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HSV 1형 : 구강포진, 입술 및 피부에 감염되어 포진이 생깁니다.
- HSV 2형 : 음부포진, 성병의 감염과 유사하게 전파되며 성기 부위에 수포를 유발합니다. 출산시 태아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접촉에 의해 전파가 가능합니다.